

잡아함 89. 우파가경

날짜: 4월 18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0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우파가(優波迦)라는 어떤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세존과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

“구담이시여, 모든 바라문들은 항상 사성대회(邪盛大會)를 칭찬합니다. 사문 구담(瞿曇)께서도 사성대회를 칭찬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우파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한결같이 칭찬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성대회는 칭찬할 만하고, 어떤 사성대회는 칭찬하지 못할 것도 있느니라.”

우파가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떤 사성대회가 칭찬할 만하며, 어떤 사성대회가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성대회에서, 여러 마리 황소와 숫물소, 암물소 및 많은 염소 새끼와 작은 중생들을 잡아매어 모두 죽이거나 찢박하고 괴롭히며, 하인이나 머슴들을 매질로 위협하고 슬피 부르짖게 하며,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은 온갖 고통을 가하며 부린다면, 이런 사성대회를 나는 칭찬하지 않나니, 그것은 큰 죄악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일 사성대회에서, 여러 마리 소들을 잡아매지 않고……(내지)…… 중생들에게 큰 고통을 가하며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성대회를 나는 칭찬하나니, 그것은 큰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 곧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사(馬祀) 따위의 대회에서 여러 가지 큰 죄를 짓나니
이러한 사성(邪盛) 큰 선인은 칭찬하지 않는다네.

모든 중생을 잡아 얹매고 작은 짐승까지 해치고 죽이니
이는 바른 모임이 아니라 큰 선인은 이를 따르지 않네.

만일 중생들을 죽이지 않고 갖가지 죄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바른 모임이라 큰 선인도 따라서 칭찬하네.

은혜로 베풀어 공양을 닦고 법에 어울리는 사성을 행한다면
베푸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요 범행을 닦는 이는 좋은 복밭[福田]이라.

이러한 대회는 나한(羅漢)의 모임
이런 모임은 큰 과보 얻고 모든 하늘들도 기뻐한다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 청하고 제 손으로 고루 베풀면
받는 이 주는 이 모두 깨끗하나니 이러한 보시 큰 과보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탈하여
죄 없이 이 세상을 즐기다 지혜로운 자 저곳에 왕생하리.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우파가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
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